

# 넘실대는 푸른 물결에

# 봄이 물결다

가파도 청보리축제 5월 12일까지

## 제주

국토 최남단 제주가 유채꽃의 노란빛으로 물들 때 가파도는 초록색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 섬 전체가 푸른빛으로 출렁인다.

따스한 봄 햇살을 받은 가파도 청보리는 쪽빛 바다와 푸른 하늘과 함께 장관을 연출한다.

가파도는 제주 본섬과 마라도 사이에 놓인 작은 섬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남향(운진항)에서 5.5km 떨어진 가파도는 여객선을 이용하면 15분 안팎이면 닿을 거리에 있다.

가파도를 멀리서 바라보면 뚝이 넓은 밀짚모자와 비슷하다. 섬 대부분이 바다와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다. 섬에서 제주 본섬 방향을 바라보면 청보리 물결과 푸른 바다, 바다 너머 산방산, 송악산, 한라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른 봄 초록으로 섬을 물들였던 청보리는 초여름 언저리엔 황금빛으로 익어가며 또 한번 장관을 연출한다.

섬 전체를 둘러보려면 걷는 게 좋다. 2시간이면 충분히 가파도를 살펴볼 수 있다. 자전거를 빌려타는 방법도 있다. 상동 선착장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다.

길은 두갈래다. 보리밭 들판을 따라 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길과 해안을 따라 한 바퀴 도는 길이 있다. 해안과 마을 말고는 들판 전체가 청보리밭이다.

가파도의 보리는 '항맥'이라는 제주 재래종이다. 일반 보리보다 키가 훨씬 커서 1m를 넘는다.

섬을 가득 채운 초록빛 보리가 바닷바람에 일제히 넘실댄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바다의 파도와 같은 리듬으로 초록빛 보리가 크게 물결치는 모습이 장관이다.

보리밭 사이사이 자리한 커다란 바위는 고인돌이다. 제주도에 남아 있는 180여기의 고인돌 중 무려 95

청보리로 덮인 섬...고인돌·돌담 따라 2시간이면 일주

보리밭·유채밭 사이 체험거리·특산물 가득한 축제 한창

기가 가파도에 있다.

해녀를 수호하고 가족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해신당(매부리당)과 서낭당(황개당)을 비롯해 주민들이 신성시 하는 '까마귀돌', '보름바위', '어명아방돌' 등도 해안을 따라 만날 수 있다.

섬을 한바퀴 돌면서 마주하는 돌담도 특이하다. 제주도는 대부분 검은색 현무암으로 담을 쌓지만 이곳은 바닷물에 닳은 마석(磨石)을 쓴다.

마을이나 방파제 곳곳에 훌륭한 수석들이 놓여 있다. 성글게 쌓았다. 가파도 섬 바람이 송송 뿜린 구멍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잘 무너지지 않는다.

이곳에 축제가 한창이다. 가파도 청보리축제가 지난달 30일 개막해 오는 5월 12일까지 계속된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축제는 '청보리밭 사이 길 걷기' 외에도 문어통발 체험, 소리잡기 체험, 나도 가수다, 댄스왕 찾기, 소원지 달기, 소원 기원 방사탑 쌓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파도 특산물인 보리쌀, 청보리차, 돌미역, 모자반 등도 축제 기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 ◇여행 정보

▲가는법=축제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슬포항 남향(운진항)에서 하루 8회 운항한다. 왕복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1만2100원(해양국립공원 입장료 별도)이다. 신분증은 승선권 모두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승선에 앞서 여객선대합실(794-5490-3)에 좌석을 예약해야 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제주신보 김문기 기자



가파도 유채꽃과 풍력발전기.



돌하르방과 청보리밭, 유채꽃이 어울려 장관이다.

광주일보 江原日報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每日新聞 부산일보 釜山日報 제주新보

新韓語彙은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섬을 가득 채운 초록빛 보리가 바닷바람에 일제히 넘실거린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바다의 파도와 같은 리듬으로 크게 물결치는 모습이 장관이다.



## 년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GOLD회원 모집

###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 연회비

| 구분     | 연회비(VAT포함)  | 비고  |
|--------|-------------|---|
| 개인(1년) | ₩ 2,800,000 | 본인 1인   |
| 증정품    |             | • 객실 무료이용권 2매<br>• 레스토랑 이용권 1매<br>• 휘트니스 이용권 4매 |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